

유병태 집사의 농사 이야기

유 병 태(집사, 봉화 옥방교회)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저는 아주 가난하게 화전을 일구며 농사를 짓던 한 농부의 4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어렵고 가난하여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어린 나이부터 농사일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가난이 싫었고, 농사일이 싫었지만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을 바엔 농부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아버님을 따라 골짜기 마다 뚝배기를 일구어 감자, 콩, 팥,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일 년 내내 일해서 가을에 수확한 (대곡)감자나 콩 등을 보리쌀로 바꾸어 먹었고, 그렇게 근근이 겨울을 난 후 늦은 봄이 되면 보릿고개 넘기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그러던 중 1970년대 중반 공업화 바람이 불면서 이농 현상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대거 도시로 도시로 하나둘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 저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꼭 농사를 지으며 농부로서의 꿈을 이루겠다는 맹세는 시류에 흔들리기 시작했고, 드디어 1979년도 초겨울 19살의 나이로 농부로서의 꿈을 접고 고향을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싣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울산에 대단이 공업단지들이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많은 사람들

이 물려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울산의 현대건설을 통해 석유화학단지 건설공사에 참여하여 용접 기술을 배우며 또 다른 세계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지만 늘 매사에 솔선수범하던 성격 탓에 일과 동료들과도 빠르게 적응하며 새로운 삶에 정착하였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저녁에 퇴근하여 집에 돌아와 누우면 어린 시절 고생하며 살았던 기억들과 고향에 대한 향수로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즈음 아버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객지에서 고생하지 말고 힘들면 집으로 돌아오너라. 농사도 열심히만 하면 예전처럼 배는 안 굶고 산다”고 하면서 돌아와 같이 농사짓자고 하셨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또다시 새로운 고민과 갈등 속에 밤을 새우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지나가는 길가에 파릇파릇 돌아난 새싹들과 논과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농사를 짓는 것이 꿈이었는데, 왜 지금 내가 이곳에 와 있지?” 순간 무엇에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길로 회사에 가서 “회사 그만두고 고향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농사가 무슨 비전이 있다고.. 너의 그 성실함이라면 몇 년 안에 우리 회사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용접기사가 될 텐데” 하면서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일이라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길로 회사를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 떠난 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버님께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하고 여쭙었더니 “난 네가 농사를 지으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농사 후계자가 되라는

말씀이었지요.

저는 사실 4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나 형제들 중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아버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정이 더 가는 자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직 어렸던 열일곱 살 때에도 가정 경제를 맡길 만큼 저를 많이 의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어느 날 저녁에 아버님께서 저를 불러 말씀하시더군요. “너희들 또래는 중고등학교 다 나왔는데 너는 부모 잘못 만나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매일 밤 호롱불 아래서 머리 거슬러가며 중학 과정, 고등과정 강의록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었다.”면서 네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귀향 후의 활동과 고냉지 채소 농사

저는 곧바로 농사를 시작하면서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청소년회를 조직하고, 면으로 군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군 단위 경진대회에서 종합우승도 여러 번 하였고 경상북도 경진대회에서 기금 조성 과제부문 2등을 하면서 농촌에서의 조직문화 즉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는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어 땅도 사고 축산도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값 파동이 오면서 저로서는 넘을 수 없는 장벽에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백만 원을 주고 송아지를 사서 2년을 키워서 5-60만원을 받았으니... 결국 축산을 정리하고 밭농사에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은 너무 외진 골짜기라서 소득이 될 만한 작목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콩, 감자, 사료용 옥수수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 농사로는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습니다. 고민 끝에 농촌지도소와 함께 경제적인 작목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해발이 600m에 가까우니 고냉지 채소를 해

보는 것도 관촬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해에 500평에 고냉지 배추를 심었는데 콩 팔의 5년 치 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하나둘 고냉지채소를 시작하여 몇 년 만에 온 마을이 고냉지 채소단지가 되어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저도 더욱 면적을 넓혀가며 고냉지 채소에 전념하였습니다. 2만여 평



유 집사 부부가 인력으로 밭을 갈고 있다

에 1년에 5톤 트럭 50대 분량의 배추를 생산하면서 엄청난 양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살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성격상 뭘 하나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이라 전국에서 최고의 고냉지 배추를 만들어 보겠다며 더욱더 열을 올려 채소에

좋다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찾아서 엄청난 양을 들이부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키운 배추가 대구와 부산에서 1등을 하기 시작하였고, 장사꾼들이 부산이나 대구에서 몇 포기를 심었다고 하면 전화로 발뵈기로 사고 팔고 하였습니다.

가재가 죽는 모습 - 친환경농사로의 전환

농사만 지어 놓으면 판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 하루는 무더운 여름날 배추밭에 농약을 뿌리다 농약이 모자라서 다시 물을 받기 위해 양수기 후드호스를 도랑에 담구고 물을 받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많은 가재들이 엄청난 거품을 내뿜으며 물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해 따라 가뭄이 심하여 배추에 진딧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약으로는 내성이 생겨서 잘 안 죽기 때문에 누가 다이메크론(솔잎
혹파리방제약)맹독성이 진딧물에 효과가 좋다고 하여 그것을 배추에 살
포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진딧물은 잘 죽었지만 많은 숫자의 가재가 죽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극미량으로 가재가 죽는다면
농약에 범벅이 된 저 배추를 먹는 사람에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만
살겠다고 이러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에 2,000여 만원
어치 농약을 진딧물 청벌레 담배나방, 총채벌레 심지어 땅속 벌레까지
씨를 말리며 쳤습니다. 1년에 아내와 둘이서 농약 치는 시간만 계산해도
하루 8시간씩 하면 꼬박 한 달을 매일 농약만 치는 셈이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농약중독도 여러 번 경험하였습니다. 점차 관행농업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업은 사람을 비
롯한 모든 생명들을 살
리는 먹거리가 되어
야 하는데, 단지 보기
좋게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고 경제
적, 상업적 수단과 가
치로서 상품화되는
것이 도를 넘어가는



부부가 함께 야콘을 캔 후 수확의 기쁨을 머금고

모습을 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일기 시작했습니다. 먹거리는 단순히 배를 채
우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이로울지를
생각하면서 먹어야 한다는 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패스콤에서
웰빙식품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에 발맞추어 친환경농업이란 단어가 농촌
에 새로운 농사방법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증산, (즉)경제적인 목적에만 맞추어졌던 생산방식과 내용물의 가치보다는 시각적인 가치로 평가되던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자정력이 발동하여 윤리적 생산과 윤리적 소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역시 2011년 농사방법을 바꾸기로 하고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농사 짓는 방법을 바꾸어 친환경농업으로 전향하였습니다. 2만평의 농지를 절반으로 줄이고 첫 해부터 무농약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때마침 같은 마을에서 수년째 친환경농사를 짓는 작은 공동체가 있어서 함께 합류하여 그 어렵다는 고추농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오염된 땅에서 고추가 제대로 자라기는 만무한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은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4년 차부터 땅이 살아나고 조금씩 수확이 나오기 시작하여 5년 차부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몇 년 동안 야콘 농사를 지어서 근근이 버텼습니다.

지역 한살림생협의 조직

처음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는 몇 가정이 시작했는데 점차 그 수가 늘어나서 20여 가정이 참여하는 큰 규모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저도 들어가던 첫 해부터 공동체 총무를 맡아 6년 동안 온갖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회장까지 십여 년을 줄곧 중심에서 술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한살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었기에 판로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나 20여 가정이 하나의 생산공동체로 생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분열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전국 한살림생산자 연합회 농산위원장을 맡아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소비자가 없으면 이는 짝사랑에 불가할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한살림이 창립된지 20년이 넘었

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우리 경북에는 한살림생협이 없었습니다. 한살림 연합에 나가서 일하면서 또한 경북의 생산자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넓은 경북 땅에 한살림 생산자도 많은데 생협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로컬푸드 운동, 탄소 줄이기 등을 구호로 외치고 있는데, 경북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서울로 서울로만 올라가는 비현실적인 소비행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몇몇 뜻있는 생산자들이 모여 한살림 경북생협을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온갖 진통 끝에 상주, 영주, 안동 지역에서 준비모임을 시작하여 뜻있는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매월 한 차례씩 모여서 각종 논의를 해가면서 구체적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2011년 창립준비위가 꾸려지고 제가 발기인 대표로 선출되어 같은 해 11월 4개 시(市) 5개 군(郡)을 통합하여 한살림경북북부라는 명칭으로 안동에서 창립총회를 하였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제가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당초 몇 명의 뜻이 모여 시작한 일이 현재는 2,700여 조합원과 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조합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 처음의 뜻을 다 이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앞으로의 비전

여기까지는 제가 살아온 과정을 두서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종교적인 삶과 농업에 대한 비전, 계획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대대로 미신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와 사는지 집안에 못 하나도 날을 받고 시를 봐서 박아야했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으면 객구를 물려야했고, 아이들이 열만 나면 점집에 물으러 갔습니다. 귀신에 얽매어 움짱도 못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 믿으면 그런 미신 같은 거 안 믿어도

된다고 해서 어머님부터 걸어서 10리 길을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마귀의 온갖 방해가 있었고, 엄청난 뗏가를 치르면서도 부모님은 끝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 나이 6살 때부터 어머님을 따라 교회에 나갔었고, 몇 년 후 아버님도 교회를 나가시고 종가집임에도 불구하고 집안 모든 행사가 교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도 18살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성인이 되면서 차츰 신앙과는 담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부모님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셨고 아버님은 안수집사님으로 어머님은 집사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신가정의 아내와 결혼하였고 가정 행사 예배만 참여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선 나무라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품안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오직 사식들에 대한 기도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부모님께선 연로해지시고 아버님은 말년에 중풍으로 3년 7개월을 누워계시다가 8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3년 후 어머님도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태어나 45년을 부모님과 함께 농사지으며 살았습니다. 제가 다시 교회에 출석하기로 다짐한 것은 아버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하관예배를 드리고 관에 취토를 하면서 4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버님께 해드린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버님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길 원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님의 믿음을 유산으로 받겠다고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친구이자 현재 제가 다니는 교회의 시무장로로부터 두란노아버지학교를 소개받아 수료하고, 다음 주일부터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였습니다.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다시 제자리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만에 교회에 돌아와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목사님의 사려깊은 배

려로 잘 적응했습니다. 교회에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목장(구역)이 세분화되면서 저희 부부가 목자와 목녀로 한 구역을 맡게 되었으며, 저희 목장에서 인도네시아 한 지역을 선교지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장에서 후원하던 신학대학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희 가정에서 신학생 한 명을 5년 동안 학비 전액을 후원하기로 하였는데 벌써 올해 졸업할 하게 됩니다.

지난 해에는 교회에서 선교지 방문이 있어서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후원하는 학생도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웠고 딸을 하나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올해는 집으로 초대할 예정입니다. 그 인연으로 지난 해 여름에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남쪽 지역인 스마랑 뚜루까 기독교재단을 통하여 생명농업연수생 5명이 한국에 와서 두 달 반 동안 저희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일하면서 생명농업과 공동체활동, 협동조합 운동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창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할 수만 있다면 생명농업 연수교류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농사짓고 공동체활동 하고 협동조합 하는 것 이것밖



경북 한살림 앞에서 농사실습 온 인도네시아 농민들과 함께

에 할 줄 아는 것이 없으니 하나님 필요한 곳이라면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농업은 반드시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까 갈수록 환경은 열악해지고, 공해는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각종 공해와 오염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가시나무에서 사과를 딸 수 없고 엉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오염된 토양에서는 생명의 먹거리가 나올 수 없으니까요.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몇 년 후면 세계 인구의 30%가 암에 걸릴 것이라는 보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섭생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은 토양을 살려내고 수천 년 지켜 내려온 토종종자를 살려내는 것이 우리농업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심는 대부분의 종자들은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1회용 씨앗들입니다. 채종도 90%가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회용 씨앗이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씨앗은 그 본래의 유전자를 가지고 수천 수만 년을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살아온 씨앗들입니다. 현대는 과학문명의 발달로 유전자를 조작하여 1년만 지나면 퇴화, 변이가 생겨서 종자자체의 유전자를 잃어버리는 1회용 씨앗을 개발하여 농민은 해마다 엄청난 종자값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우리가 매일 먹는 먹거리 종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격이 아닐런지요?

저는 4년 전부터 땅살림운동의 하나로 탄소자연농법을 시작하였고, 토종고추 복원운동도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제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평생을 기도하신 부모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평생 기도 속에 아들이 어디에서든지 꼬리 되지 않고 머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어릴 적 가난하게 살았으니 먹을 것 풍족하게 살게 해 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그 기도소리가 지금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지금껏 소속한 단체마다 앞에 섰고, 움막 같은 집에서 살다가 고래등같은 기와집에 살게 되었고, 골짜기마다 화전뿔기 일구던 소년이 지금은 집에서 걸어서 5분 안에 만여 평의 내 땅을 밟을 수 있는 문전옥답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